

미디어월서 미리 만나는 '반디산책'

ACC 31일까지 프리뷰 국내외 영상 작품 8점 전시 인류세 어제와 오늘, 내일 조망

인간의 이기심은 포유동물인 곰을 포획하고 착취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곰은 담즙, 발바닥, 가죽, 두상 등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곰의 운명을 웃음이 깃든 반어와 풍자로 승화시킨 미디어작품은 우리의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흔히 오늘의 지질시대를 '인류세'라고 한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일컫는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지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이 미디어퍼사드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을 개최한다.

오는 31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ACC 미디어퍼사드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의 프리뷰 형태로 진행된다. ACC 미디어퍼사드는 융·복합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로 올해는 '자연 그대로!'를 반영해 기후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미디어월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국내외 영상 8점을 볼 수 있다. (본 전시 개막 이후에는 하늘마당, 열린마당, 상상마당 등에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는 인류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는 '기억하기', '실천하기', '준비하기'로 구성됐다.



디지털 세로토티의 '뉴 월드? II'

1부 '기억하기'는 동물 초상 기록화 기법의 산물이다. 성실화랑의 '멸종위기 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인트로'는 100여 종의 동물 초상화를 세계 자연보호연맹 적색목록과 함께 구성했다.

'실천하기'에는 개발의 그림자를 역설적으로 유쾌하게 그린 찰스 린 이 용의 '거기 있었던 것들을 위한 외로운 콘서트'가 등장한다. 싱가포르 밖에서 첫 공개되는 작품이다.

정혜정의 '반의 반의 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 스티로폼 입자를 비롯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이 주요 소재다.

에이아이비비의 '바벨바벨 II'은 고대 바빌로니아 바벨 탑 이야기에서 착안했다. 관람객이 온·오프라인 세계에 쓰레기로 바벨탑을 쌓는, 일종의 관객 참여형 웹 아트 작품이다.

언급한대로 포획과 남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곰의 운명을 반어와 풍자로 묘사한 작품도 있다.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를 출품한 장종완은 인

간의 이기심의 끝이 어디인가를 곰을 모티브로 보여준다.

블록체인 체제를 매개로 한 작품 '뉴 월드? II'는 디지털 세로토티의 작품으로 불가능한 토큰(NFT)이 말하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상황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떠올리게 하는 파도로 표현해 기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고사리의 자기 복제와 무성아 번식에서 비롯된 작품도 있다. '준비하기'에서는 김을지로의 '고사리 걸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 움직임과 결부된 가상의 존재를 새롭게 배양하는 실험은 사뭇 이색적이다.

우주에서 목화씨를 심고 그것을 음악으로 키운다는 내용의 레이레이의 '우주 목화'는 발상이 흥미롭다. 사랑으로 키워낸 목화씨가 구름과 솜사탕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동심 같은 순수함을 연상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한목 선생·민족대표 33인 재조명 세미나

해남군, 16일 옥천면사무소 3·1운동 역사마을 조성 계획도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옥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강 양한목 선생과 '민족대표 33인'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해남 출신의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목선생과 3·1운동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역사·문화 체험교육을 위한 역사마을 조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주민참여형 운영컨텐츠 발굴과 주민 역할 정립을 통해 바람직한 역사마을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관람 시설 중심의 역사마을을 넘어, 가치 중심의 주민참여형 역사마을 관리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역사마을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강 양한목선생과 민족대표 33인'의 3.1운동 정신계승을 주제로 양성현 지강연구소 연구원의 발제로 시작하는 이번 세미나는 진희선 연세대 교수, 이명주 명지대 교수, 문창현 박사(광주전남연



해남군 지강 양한목 선생 기념관에 설치된 선생의 흉상.

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해남군은 세미나를 통해 지강 양한목 선생과 민족대표 33인 및 덕촌 양득중 선생의 실학정신 계승 등 역사 재조명을 통해 해남 3·1운동 역사마을 조성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광주디자인진흥원, 11월 11일까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제조·인쇄·연관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2 광주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사업', '광주형 인쇄물 제작 통합 플랫폼' 소공인 참여기업(파트너)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인쇄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인쇄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인택트 산업으로의 발전 등 인쇄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스마트교육, 컨설팅, 인쇄상품화, 라이선스, 공동포장재, 홍보마케팅 등을 중점 지원

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활자활작(www.hihjj.co.kr)'을 운영, 시장과 판로를 확대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광주시 소재 인쇄, UV인쇄, 디지털인쇄, 기타특수 인쇄 등 인쇄업체이며 디자인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11월 11일까지 참여기업에게는 기업별 포트폴리오(상세페이지) 사진 촬영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중점 지원한다. 문의 062-236-501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제관광박람회·싱가포르서 '관광도시 광주' 알린다

광주시·광주관광재단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코로나 19로 위축됐던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광주 알리기에 나선다. 재단은 광주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광주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8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와 싱가포르 'NATAS Holidays 2022'에 참가해 '관광 도시 광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11일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광주 여행지'를 테마별로 소개한다. 예술 여행, 광주-전남 연계 관광 등으로 구성된 광주 전담 여행사 12개사의 광주 여행 상품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관광객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재단은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 'NATAS Holidays 2022'에서 현지 관광객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광주 관광 상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관광재단이 운영 중인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내 부스.

특히 향후 무안공항-싱가포르 간 전세기 운영과 정기 노선 운항에 대비해 현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여행 상품 기획을 유도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부터는 필리핀 현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광주의 관광 자원을 선보인다. 광주에서 전남, 부산

으로 이어지는 이번 팸투어는 지방 관광 활성화와 한국 관광 인지도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광주 관광 홍보를 통해 관광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21일 법인절 앞두고 특별기도

오는 21일은 원불교의 주요 경절인 법인절이다. 소태산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후 표준제자 9인과 함께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해 법계의 인연을 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소태산 대종사는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했다.

원불교 광주전남교구(교구장 이장훈)에서는 오는 21일 법인절을 맞아 각 교당별로 코로나 19 질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희생 영령 합동특별천도제 및 해원·상생·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를 준비했다.

광주전남교구는 이번 합동 특별천도제를 광주전남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당에서 함께 진행하며 천도제 현공금을 모아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로 했다.



한편 백산 이장훈 교구장은 "100여년 전 원불교를 창시한 우리 선진님들은 창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우리도 현재 세상의 큰 고통인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을 함께 하고 창생을 위하고자 했던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